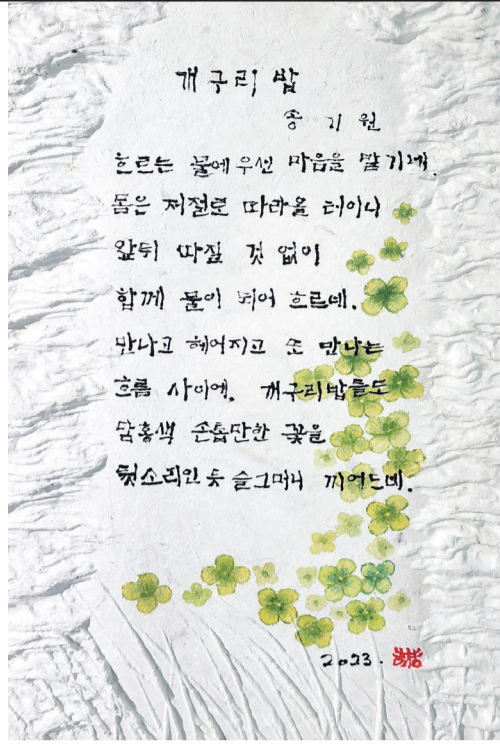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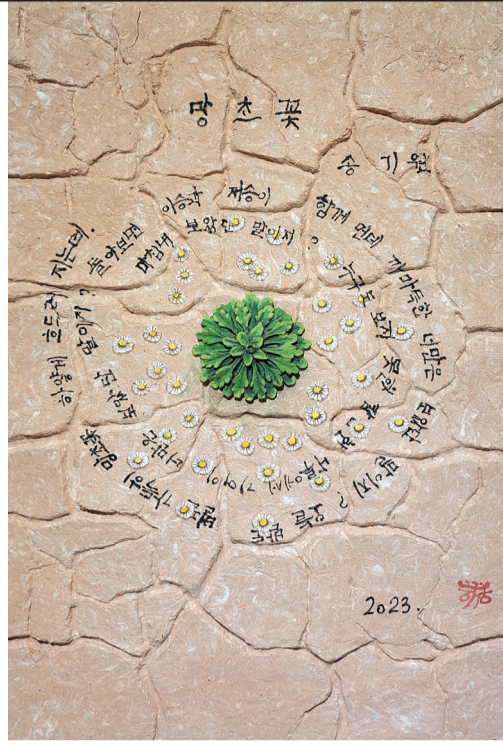


‘그대가 그대에게  
절을 올리니’



강대철 조각가의 그림과 송기원 소설가의 시화 작품에는 두 작가의 삶과 예술에 대한 심미안이 투영돼 있다.



# 어느 날 문득... 시와 그림의 만남

보성 출신 송기원 작가. 시인이면서도 소설가인 그는 동인문학상 수상, 오영수문학상, 김동리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 197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화복기의 노래’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경외성서(經外聖書)’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강대철 조각가는 홍익대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전도유망한 작가였다. 1978년 국전 문공부 장관상과 제1회 중앙미술 대상을 수상했으며 10여 회 개인전을 가졌다. 그는 문학에도 조예가 깊어 장편소설 2권과 수필집 3권을 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문득 조각가로서의 삶과 세속의 업적을 버리고 시골로 낙향했다. 터를 잡은 곳은 장흥군 안양면. 어느 날 곡괭이로 토굴을 파면서 점토층으로 이뤄진 산의 속살과 맞닥뜨렸고, 조각가의 본능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굴을 파면서 조각토굴’을 완성했다.

송기원 소설가와 강대철 조각가가 시화전을 열고 있어 화제다.

오월미술관에서 30일까지 진행되는 ‘그대가 그대에게 절을 올리니’는 이색적인 전시다. 모두 50여 점의 작품은 두 작가가 상정하는 예술, 삶, 이상 세계에 대한 단상 등을 표현하고 있다.

두 작가는 전시를 앞두고 각각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송기원 작가가 시선집 ‘그대는 언제나 밖에’와 장편시집 ‘그대가 그대에게 절을 올리니’를 펴냈다. 강대철 조각가는 이에 앞서 시화집 ‘어느 날 문득’을 발간했다. 각각의 시집은 모두 살림 출판사에서 출간됐으며 짧으면서도 깊은 사유와 단상을 담고 있다.

### 송기원 소설가·강대철 조각가 ‘시화전’ 30일까지 오월미술관 예술·삶·이상세계의 단상 표현

송 작가는 전화 통화에서 “이번 시화전은 모두 강 조각가가 준비를 했다. 시화전의 시도 모두 그가 골라줄 만큼 많은 애정을 쏟았다”며 “이번 전시를 위해 잘 그리지도 못하는 그림도 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화전의 시들은 일반적인 시가 아니라 잠언의 형식과 연관된 짧은 시들”이라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주제의식을 담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목상 같아서 견져 올린 잔잔한 울림을 지닌 시들과 만나게 된다. 격동의 현대사를 겪으며 살아야 했던 문인이 지나온 삶에서 깨닫게 된 사유들은 곱씹어 볼만하다.

“흐르는 물에 우선 마음을 맡기네/ 몸은 저절로 따라올 터이니/ 앞뒤 따질 것 없이/ 함께 물이 되어 흐르네./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는/ 흐를 사이에, 개구리밭들도/ 담홍색 손톱만한 꽃을/ 뒤틀소린 듯 슬그머니 끼여드네.”

위 시 ‘개구리 밭’은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투영한 작품이다.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므로 물과 함께 흐른다는 자유의 의지를 표현한다. 시간고난한 젊은 날을 뒤로 하고 마음과 몸을 흐르는 물과 함께한다는 사유는 얼핏 도가사상을 떠올리게 한다.

송 작가는 74년 시와 소설이 중앙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같은 해 11월 고은, 이문구,

박태순, 윤홍길, 이시영 등과 함께 ‘문학인 101인의 시곡선언’에 참여했다. 1980년 ‘김대중내란을 모사간’이라는 조각극에 맡겨 10년형을 언도받고 구금생활을 했다. 1982년 12월 형집행정지로 구금에서 풀려났지만 다시 1985년 8월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구속됐다.

그는 파란의 삶을 역사의 격랑에 휘말린 곡적의 삶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문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이 지난 세월을 버티었다. 다음의 시 ‘푸른 불빛’이라는 작품이 주는 여운도 만만치 않다. 오랜 시간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평온을 찾은 화자가 자신을 ‘푸른 불빛’으로 상징하고 있다.

“밤하늘에, 내가/ 푸른 불빛으로 밝혀 있다// 구태어 내가 올라가거나/ 밤하늘이 내려온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혹은/ 아직 살아 있을 때부터// 밤하늘에, 내가/ 푸른 불빛으로 밝혀 있다.// 죽는다는 것도, 애오라지// 푸른 불빛으로 밝혀 있는 순간일 뿐.”

강대철 조각가의 다양한 그림은 전시장 벽면에 부착돼 있다. ‘호머시페멘스의 유언’이라고 표기돼 있는 작품을 비롯해 ‘모란’, ‘휴일’, ‘화복기의 노래’ 등은 강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와 불교적인 분위기가 짙게 배어나온다. 마치 그의 시화집 ‘어느 날 문득’에 실린 시들이 말하는 느낌과 유사하다.

강 조각가는 시화집 ‘어느 날 문득’에서 “시골로 살타터를 옮겨 무명씨로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보낸 세월이 어느새 20년이 되어 가고 인생을 거의 다 써버린 이즈음에 그래도 어울려 한마디 하고 싶어 말을 내뱉는다”라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렌체의 베끼오 궁전에서 진행했던 가야금 공연. (빛고을무등가야금연주단 제공)

## 정선옥 가야금 선율, 피렌체 물들이다

빛고을무등가야금연주단 대표, ‘피렌체 아트 엑스포’ 개막 공연

### 2월 2일 오디토리움 CRF

르네상스의 발원지이자 ‘문화 예술의 꽃’으로 불리는 도시 피렌체.

이탈리아 피렌체시가 후원하고 피렌체 트릴로 국제음악학교·예술대학이 주관하는 ‘2024 피렌체 아트 엑스포’ 개막공연에서 광주에서 활동하는 정선옥 빛고을무등가야금연주단 대표가 독주회를 펼칠 예정이다. 오는 2월 2일 오후 8시 30분 피렌체 오디토리움 CRF.

피렌체 국제 아트 엑스포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민간 예술 축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합창, 성악부터 공예, 디자인, 건축, 요리와 사진, 전통예술까지 다양한 분야의 페스티벌을 모은 엑스포 형태로 열리고 있다.

정선옥 가야금 연주자는 피렌체시가 선발하는 올해의 아티스트 상 기부 공연에 초청 독주곡으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를 선보인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죽파 김난초에서 한성기 등으로 전승된 가락을 담고 있다.

전남대 국악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정선옥 가야금 연주자는 원광대 국악학 박사학위 등을 취득했다. 전남도립국악단 상임, 부수석, 수석단원으로 30여 년간 재직했으며 현재 빛고을무등가야금 연주단 대표를 맡고 있다. 제29회 해남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선옥은 “이탈리아에서 연주할 때마다 외국인



가야금 연주자 정선옥 씨

들이 한국 전통문화에 보내는 관심과 애정이 크다는 것을 느낀다”며 “우리 전통문화와 가야금 소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국적인 것의 풍류를 세계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포핸즈로 만드는 환상의 하모니

독립기획자 최혜지 ‘Lieto Piano’ 공연... 3월 2일 광주 디엠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3월에 즐기는 포핸즈 앙상블의 도미.

독립기획자 최혜지(여·26) 씨가 공연 ‘Lieto Piano’를 3월 2일 광주 디엠홀(동구 중앙로 148번길 11-47)에서 펼친다. 오후 3시, 7시 2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은 총 24인의 광주·전남 출신 피아니스트들이 2명씩 짝을 이루어 원피아노 포핸즈로 다양한 작곡가들의 피아노곡을 선보인다.

공연의 막은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포핸즈, Op.72’를 순천대 피아노학과에 재학 중인 김예지와 최지선이 연다. 전남대(피아노 전공)를 졸업한 유수민, 행사를 기획한 최혜지는 카푸스틴 곡

‘포핸즈 신포니아타, Op.49’를 함께 들려주며 김민호, 정재은은 슈트라우스 주니어의 ‘헝가리 무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순천대 피아노학과를 졸업한 김세연과 이서현은 드뷔시의 ‘피아노 듀엣 작은 모음곡’을, 김재원과 이점은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포핸즈 버전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차이콥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6번, Op.66’은 유예민과 정지민이 호흡을 맞춘다.

이 밖에도 김한비, 장가을, 이서영을 비롯해 김수현, 강은우 등 광주·전남 지역 새내기 예술가들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행사를 총괄하는 최혜지 기획자는 “공연명의



최혜지



김민호

‘Lieto’가 이탈리아어로 즐거움을 뜻하는 만큼, 포핸즈 음악을 관람하며 행복을 만끽하는 연주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을 비롯해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을 기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석 조대.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세기말의 사랑’



‘아네스 V에 의한 제인 B’

## 여성감독 예술영화, 광주극장서 만나요

‘추락의 해부’·‘세기말의 사랑’·‘플랜75’·‘아네스 V에 의한...’

제76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쥐스틴 트리에의 ‘추락의 해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감독상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남옥상을 거머쥔 임선애의 ‘세기말의 사랑’, 하야카와 치에 작 ‘플랜75’ 그리고 아네스바르다 감독의 ‘아네스 V에 의한 제인 B’까지...

언급한 네 편의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여성 감독들이 광주극장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이라는 것이다. 광주극장에서 상영하는(또는 예정인) 네 편의 영화가 이목을 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작품은 오는 31일 개봉하는 ‘추락의 해부’와 ‘아네스 V에 의한 제인 B’.

추락의 해부는 남편이 추락사한 뒤 유력 옹의자로 지목당한 작가 ‘산드라’와 목격자 아들, 안내건의 이야기를 담았다. 의도된 살인인지, 우발적 자살인지 의문스러운 전개 속에서 비밀을 찾아가는 스토리다.

주제와 기술의 측면에서 프랑스 영화계에 새로운 물결(New wave)이 뒤편 누벨바그 영화의 최초 여성 감독인 아네스바르다의 작품 ‘아네스 V에 의한 제인 B’도 관객들을 만난다. “우리가 사랑한 제인 바킨의 새로운 얼굴을 모두가 궁금했던 아네스바르다의 이야기”라는 씨네로그가 인상적이다.

이밖에 새천년이 되면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던, 1999년 만의 감성을 담은 ‘세기말의 사랑’은 현재 상영 중이다. 일본의 유망주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플랜 75’ (2월 7일 개봉)는 제75회 칸영화제에서 신인상 격인 ‘황금카메라상’에 특별 언급됐으며,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 장편 영화상에 일본 출품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설 연휴기간과 맞물려 여성 감독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예술영화들을 상영할 예정이다”며 “다큐부터 르포르타주,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한강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마영신 만화 ‘엄마들’

##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 최종 후보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와 마영신의 만화 ‘엄마들’이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

29일 한국문학번역원과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따르면 ‘작별하지 않는다’와 ‘엄마들’이 프랑스 국립중앙박물관 기메박물관이 주최하는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 최종후보에 최근 선정됐다.

제주 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기메 문학상의 소설

부문 최종후보 세 작품에 포함됐다. 경쟁작은 살만 루슈디(인도·영국)의 ‘승리의 도시’, 가와사키 아키코(일본)의 ‘말과 비빔’이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8월 최경관·피에르 비지우의 번역으로 ‘불가능한 작별’(Impossibles adieux)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에서 출간된 뒤 11월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의 외국문학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마영신의 만화 ‘엄마들’은 이번에 처음 신선행



기메 문학상 그래픽노블 분야의 최종후보 두 편에 포함됐다. ‘엄마들’은 앞서 올해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 공식경쟁부문 후보에도 올랐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다.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은 프랑스 내 아시아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제정된 상으로 직전 1년간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된 현대 아시아문학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수상작은 다음 달 29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연합뉴스